



겨울바다에서 즐기는 카이트서핑 24일 제주도 구좌읍 종달리 앞바다에서 카이트서퍼들이 바람을 가르며 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 “지하수 추가 개발보다 급수체계 개선”

24일 제1차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안 공청회  
제주 관광사업 큰 비중... 기타 용수 공급방안 필요  
통합물관리체계·제주형 물공급체계 구축 서둘러야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제주지역 특성 상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물 수급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측돼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 대신 급수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한 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는 2030년 제주지역에선 평균 기온이 높아지고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한다는 내용의 기후변화가 전망됐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24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안' (2021-2030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1차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2019)이 제정, 시행되면서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유역 물관리 부문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2030년까지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 물관리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며 지자체가 향후 수립하는 물 관련 계획의 기준 역할을 한다.

계획안에 제시된 유역별 물관리 여건 및 2030년 물 수급 전망에 따르면, 제주권역은 지하수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 변화에 따른 용수 관리의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 기후변화 전망 결과 제주권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0.62℃

높아지며, 연평균 강수량은 198.0mm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타유역에 비해 관광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해 추가적인 지하수 개발 대신 정수시설 확충, 관망 개선 등 급수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내 인구는 2020년 67만 6000명에서 2030년 75만 9000명으로, 관광객 비중은 연간 1500만 명 전후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토지 이용의 경우 관광지 개발에 따라 농경지가 감소하고 시가지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영산강·섬진강·제주권 거주민 대상 유역 물관리 인식조사 결과, 제주권 주민들은 수질·수생태 등 '물 환경' 관리를 유역 물관리의 최우선 핵심가치로 보고 있었다.

모든 권역의 주민들이 높은 농업 용수 수요와 기후변화에 따른 물 재해 위험을 동시에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수량에 집중한 물관리에서 통합 물관리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정책 과제는 ▷자연성 회복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 안전 확보 ▷지속가능한 물 이용 ▷물 환경 관리 및 보전·복원 ▷물 가치 창출 ▷물 갈등 조절·해결 ▷물 거버넌스 구축 등의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제주권 향류전 종합적 관리 방안을 추진과제로 삼았다. 물환경 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전구역 확대 추진, 지하수 주함양지역(중산간) 수질 보전·복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또 제주형 물 공급·이용체계 구축을 목표로 염지하수 담수화 등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제주 안심 수도물 공급체계 구축 등을 과제로 추진한다.

한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계획 수립 및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한라일보 '지역신문기금 지원 대상' 지발위, 2022년도 기금 우선지원대상사 발표

제주지역 열독률과 발행·유료부수 1위 한라일보가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로 한라일보·인천일보 등 일간지 25개사와 주간지 53개사 등 78개사를 선정, 24일 발표했다.

2005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원년 지원대상사인 한라일보는 이후 1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금까지 제주지역 최다인 16회 선정되면서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지역신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라일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처음으로 실시한 '2021신문잡지 이용조사' 제호별 열독률과 종이신문 유료구독률에서 다른 신문을 월등

한 차이로 제치고 제주지역 1위에 올랐다. 또 한국ABC협회 2021년도(2020년분) 일간신문 발행부수와 유료부수 인증에서도 발행부수 1만 9753부, 유료부수 1만 2330부로 다른 지역신문보다 2000부가량 많아 1위를 기록하는 등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는 제주지역에서 한라일보와 제민일보, 주간신문인 서귀포신문이 선정됐다.

다음은 우선 지원대상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남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남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위영석기자

## ■ 물은 제주의 미래다... 제주 지하수 실태 “대체수자원 공급 인프라 확대를”

제주지역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염지하수, 용천수, 빗물, 하수 재처리수 등 '대체수자원' 활용이 제기되면서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질 안정성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라일보와 (사)제주와미래연구원, KCTV제주방송, TBN제주교통방송은 공동 특별기획으로 '물은 제주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아래 일곱 번째 소주제로 '대체수자원, 획기적 이용 확대 방안은 없는가?'를 다뤘다.

>>관련기사 7면  
토론은 지난 6일 제주와미래연구원에서 김태운 제주와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진기욱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장, 서상기 한국농어촌공사 제주

지역본부장이 참여했다.

도내 수자원 전체 용량 중 지하수 이용량은 약 96.7%를 차지하는 반면 대체수자원 이용량은 약 3.3%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용천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 확대, 하수 재처리수·염지하수 활용방안 및 인식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기욱 도 물정책과장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문제 등 농업용수 사용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 대체수자원을 발굴하고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농업분야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수 보전관리와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당신의 건강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10406-중-120898 [광고]

종합건강검진  
(내시경, 초음파, CT, MRI)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064-740-0200  
http://jeju.kahp.or.kr